

현대 도시에서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과 표현 특성

손은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박사

I. 서론

기억(memory)이 도시의 장소와 경관을 만드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탈산업화로 폐쇄된 산업 시설과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 및 인프라스트럭처를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post-industrial park)은 이미 새로운 도시 공원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어떤 사건이나 기억을 연관된 장소에 남겨 기록하고, 기념 또는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동상이나 기념비를 대체하는 메모리얼 공원(memorial park)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근현대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과 경관을 보존하는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 또한 기억과 관련된 도시 경관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과 시설을 활용하는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 정책은 기억을 활용하여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기억과 연관된 경관은 언제, 왜 도시 공간에 등장하였는가? 어떤 기억이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추상적 개념인 기억이 물리적 장소의 구성 요소로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도시 공공 공간에서 기억이 활용되는 경향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억 경관(landscape of memory)'에서 실제로 장소 기억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가를 탐구한다. 이때 기억이란 기억 행위이자 방식으로서 '회상'이며, 경관을 구성하는 재료이자 남겨진 흔적으로 장소 기억(place memory)과 합의된 집단 기억의 이미지로서 공적 기억(public memory)을 포괄한다.

기억 경관의 등장은 우리가 기억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로운 기억들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에 기억이 새로운 구성 요소로 편입되었다. 기억의 흔적은 오늘날 도시 경관 및 공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재료가 된 것이다.

II. 경관을 형성하는 기억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20세기 후반, 특히 1980년대를 전후로 나타난 기억의 붐(memory boom)을 비롯한 기억에 대한 인식

및 사고 방식의 변화와 연관이 깊다. 먼저 기억 매체가 변화하였다. 1960년대경부터 기억을 위한 주요 매체는 활자(인쇄)에서 전자·대중매체로 변화하고 있으며(McLuhan, 1962), 이로 인해 인간이 어떤 것을 암기하는 것보다 매체를 통해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되면서 암기가 쇠퇴하고 '회상'이 부상하였다(Casey, 1987).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서구권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기억 논의가 급증하는 "기억의 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Winter, 2001).

기억은 왜 20세기 후반에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전자·대중매체의 등장으로 기억과 정보량이 방대해지면서 오히려 급격한 변화를 겪은 근대의 기억들이 상실되었고(Huyssen, 1995), 급격히 흘러간 과거의 흔적들을 다시 기억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Nora, 1984). 이때 장소와 경관은 기억을 보존하고 회상하는 매체이자 기억을 경험하는 매체로서 주목을 받았다(Assmann, 2009). 특히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명된 장소 기억으로는 산업 기억, 근현대 역사 및 기억, 재난 기억, 피해자와 소수를 추모하는 기억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도시 공공 공간에서 활용되는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공적 기억'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공적 기억이란 유사한 배경 지식과 기억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 간 통용되고 소통되는 공통의 기억"을 말한다(Houdek and Phillips, 2017). 오늘날 기억 경관은 해당 장소와 관련된 집단 간 기억 공유 및 합의의 결과물이다. 기억 논쟁이나 충돌의 양상까지도 경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경관은 공적 기억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매체이자 공적 기억이 표출되는 물리적 공간이 된다.

III. 기억 경관의 출현과 형성

20세기 후반 기억의 변화는 동시대 기억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형성된 기억 경관의 유형으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을 들 수 있다.

먼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1960년대 탈산업화 및 산업 도시 쇠퇴로 촉발된 도시 재생 담론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탈산업화로 유기된 산업 시설과 인프라가 도시 재생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의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 폐허는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18세기 픽처레스크 정원의 폐허 감상

에서부터 출발하여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승고(sublime)에까지 이른다. 또한 오염되고 유기된 산업 부지를 재생하는 야생의 산업 자연(industrial nature)은 도시에서 자연과 생태를 표방하는 상징적 기호가 된다(Kowarik, 2005).

메모리얼 공원은 20세기 후반 기억의 방식이 기념에서 추모로 변화하면서 등장하였다. 본래 20세기 중반까지 메모리얼은 주로 동상과 오브제 등의 기념물을 중심으로 국가적 영웅이나 지도자를 위한 기념비로 구성되어 왔으나, 정체성 정치의 등장, 기억의 붐과 공적 추모, 기념비 중심의 거대한 역사적 담론 탈피 등의 변화로 점차 추모(commemoration)의 공간으로 변화한다(Young, 2016). 특히 조각상과 기념물 중심으로 조성되던 기념비는 추모의 경험을 위한 공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대 역사 경관은 근현대 시기의 역사 및 문화재의 지위가 향상되고, 근현대 역사 중 전쟁·식민지·내전·테러 등 불편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현경, 2018)되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크 투어리즘, 네거티브 헤리티지, 불편 문화유산, 포스트 콜로니얼 경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근대 역사 경관은 형식적으로 1970~80년대 등장한 야외박물관인 에코뮤지엄의 과도기적 형태를 지나,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의 자원으로서 근현대 시기의 역사 및 기억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단일 문화재 건축물의 범주를 넘어 도시 경관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새로운 부지와 기억 유형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기억 경관 유형은 점차 혼성 및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IV. 현대 도시에서 기억 경관의 표현 특성

어떤 기억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 기억은 왜 중요한 기억으로 인식되는가? 본 연구는 기억이 경관에서 '선별'되고 '표현'되는 두 단계를 거쳐 활용된다고 보았다. 도시화하자면, '어떤 기억 A는 B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어, 경관에서 C라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즉, 장소에는 여러 시대의 기억과 흔적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장소 기억 중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 받은 기억이 선별된다. 이어서 선별된 장소 기억을 경관에 표현하는 단계가 수행된다. 기억 경관의 표현 방식은 새로운 기억이 발굴되거나, 특정 기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때, 또는 환경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서울 호수공원과 서소문 역사공원,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오늘날 경관에서 기억이 표현되는 양상을 탐구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일차적으로는 대부분 부지에 남겨진 기억의 흔적이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억의 흔적들은 부지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으로서 보존되며, 경관에서 재현되거나 활용된다. 그러나 어떤 기억의 흔적들은 선별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하고, 어떤 기억들은 지표면에 남겨진 흔적이 없음에도 중요한 장소 기억으로 선별되어 기억의 터로서 복원되기도 한다. 예컨대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여과지동

과 취수동 등은 주요한 정수장 시설임에도 구조안전성 문제로 철거되었으며, 서소문 역사공원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순교 및 박해와 관련된 실제 기억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에도 기억의 터로서 복원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기억은 보존 이외에도 삭제와 복원 등의 행위를 통해 선별된다. 부지의 모든 기억이 보존 혹은 활용되지 않고 이처럼 기억이 선별되어 표현되는 이유는, 각 개별 기억 요소들이 경관에서 하나의 주제나 개념으로 엮이면서 독특하고 고유한 장소성 및 장소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기억 경관은 추상적 기억이 특정 주제나 개념을 통해 구체화된 물리적 이미지로서 기억을 경험하고 회상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경험된다.

특히 기억이 물리적으로 주제화 및 개념화되면서 기억 경관에는 여타 도시 경관과 구분되는 고유한 장소 정체성과 장소감이 부여된다. 이는 기억 경관을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험 공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조성 과정에서 새로운 현재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은 기억 경관은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 활성화된 공적 기억의 이미지로 표출되고 인식된다.

V. 결론

기억은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장소 정체성과 장소감을 부여함으로써 기억 경관을 여타 다른 도시 경관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까운 과거'로서 기억 및 근현대 역사의 위상이 높아지는 오늘날 기억 경관은 도시 재생 정책과 맞물려 추후 지속적으로 도시 공간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경관에서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추상적 개념인 기억을 물리적 공간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억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보다 진정성 있고 다채로우며 지속 가능한 현대 도시의 기억 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현경(2018) 불편문화유산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0: 163-192.
2. Assmann, A.(2009) Erinnerungsraume. Munchen: Verlag C. H.Beck oHG.
3. Casey, E. S.(1987) Remembering.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4. Houdek, M. and K. R. Phillips(2017) Public Memor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5. Huyssen, A.(1995) Twilight Memories. New York: Routledge.
6. Kowarik, I.(2005) Wild Urban Woodlands: New Perspectives for Urban Forestry. Berlin: Heidelberg: Springer.
7. McLuhan, M.(1962)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8. Nora, P. ed (1984) Les Lieux de Memoire. Paris: Gallimard.
9. Winter, J.(2001) The generation of memory: reflections on the memory boom i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Canadian Military History 10(3): 57-66.
10. Young, J. E.(2016) The Stages of Memor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